

인사말씀

무궁화위성을 시작으로 한 국내의 위성통신과 우주산업은 GMPCS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세계적인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초기단계인 국내의 위성통신 및 우주산업을 위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태지역의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발전은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국내 위성통신 및 우주산업이 아·태지역에서의 위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조명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집을 내면서...



이러한 취지하에 계획한 본 특집은 처음에는 국내 위성통신의 아·태지역에서의 상호협력 및 기술 교류분야에도 초점이 맞춰 기획되었으나 국가간의 협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집기사로 다루기에는 아직 때 이른 감이 있어 몇 가지 기사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특집에서 다룬 위성 사업 정책 분야, 아·태지역 서비스 수요 및 정책 동향, 통일시대를 대비한 위성 통신기술 등은 앞으로 우리 나라 위성통신 및 우주산업에 있어 주변국들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한·일간의 위성통신망 실험은 유럽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국가간의 초고속 위성통신망에 대한 실험의 한·일간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사업은 아·태 지역 여러 국가간에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하기절에 의미 있는 원고를 집필하여 주신 여러 필자분들과 특히 바쁘신 중에도 본 특집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성득 차관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기획단계에서 특집이 나오기까지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통우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통신위성·우주산업 연구회지가 회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알찬 내용의 연구회지가 되도록 편집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집위원장 이 병 섭